

제6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경제와 귀농 · 귀촌

2012. 07. 06(금)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6차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콜로키움(Colloquium)이란 "모여서 말하기, 대화하기"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 의미로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 토의하는
방식을 의미

1. 행사개요

- 일 시 : 2012년 7월 06일(금) 14:00 ~ 16:00
- 장 소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393, (구)월산초등학교)
- 대 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있는 연구원, 교수, 실천가, 공무원 등

2. 행사목적

-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이론 및 실천방안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구성원의 역량강화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사업의 발굴 및 정책지원 방안 등

3. 행사순서

14:00~14:05	개회사
14:05~14:10	충남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소개
14:10~14:50	발 표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차광주 연구소장(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14:50~15:00	휴 식
15:30~16:00	토 론 좌 장 송두범 센터장(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토 론 이상구 사업단장(서천군귀농인협의회) 이기왕 이장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조남준 대표 (조아라) 참석자 전원

목 차

발 표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차광주 연구소장(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1

토 론

토 론 1: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례

이상구 사업단장(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9

토 론 2: 원주민이 바라보는 귀농, 귀인의 문제와 과제

이기왕 이장(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11

토 론 3: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조남준 대표(조아라) 15

참고문헌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유학열 부장(충남발전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25

한국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귀농·귀촌

이수행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 41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발 표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차 광 주 연구소장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차 광 주

괴산 귀농지원센터장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장

귀농·귀촌?

- 저마다 처지와 생각이 다름
- 인간 중심의 생각 반성
- 과학문명에 대한 시각
- 대량생산체제의 문제
- 의식의 전환
- 미래의 일꾼
- 아래에서 더 아래로-하부를 강화하라
- 말과 글-가능한 한 실천한 것만

귀농·귀촌의 현황

- 은퇴농(귀촌)의 증가
- 현재 귀농운동은 부동산중개업소가
- 집과 땅
- 지역에 어떤 변화?
- 귀촌자 실태 파악 필요

농촌의 현실

- 고령화-양로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사업(권역 사업)
- 농협
- 지자체
- 협치?

사업 주체의 형성 1

- 토박이들과 귀농·귀촌자의 결합
- 현명한 농민들과 실무처리 능력의 결합
- 지역과 농촌, 농업을 지켜온 분들에 대한 존중
- 끊임없는 대화 필요

사업 주체의 형성 2

귀농지원센터 활성화

- 귀농·귀촌자 실태 파악
- 귀농·귀촌자 상담 강화
- 귀농·귀촌자와 토박이들의 결합 지원
- 사업 공모제

사업 주체의 형성 3

자발적인 움직임들 주목

- 귀농자의 집
- 귀농자모임
- 명상
- 공동체
- 협동조합
- 침땀
- 생태건축
- 방과후공부방

사업 주체의 형성 4

자발적인 움직임들 주목

- 노인복지
- 귀농귀촌교육
- 도서관
- 대안교육

과제

- 농협, 지자체의 농민에 대한 관점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사업체들에 대한 실태 파악, 지역 기여 유도, 지원 정책 필요
- 생산조직을 근간으로 하되 그 밖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자발적인 조직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1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례

이 상 구 사업단장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례

이상구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업단장)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충남 서천의 경우 현재 13개의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탄생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보단계로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지난 2010년 11월에 지정되어 현재 8명의 정규직과 5명의 비정규직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농산물판매업, 친환경 목조 주택 신축업, 조정 등의 영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금년 매출 7억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업단장으로써 지난 1년간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요약해보고자 한다.

첫째, 귀농인에게 맞춤형 일자리제공이 가능하다.

작금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속에서 귀농인들의 다양한 전직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문직에 고용이 가능하다.

둘째, 귀농인들의 평균 연령대가 여러 직종에 합당한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의 귀농통계를 보면 4~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귀농인들은 전업농에 도전하기가 어렵다.

영농에 대한 무경험과 막대한 시설투자 등 귀농인들은 전업농으로의 도전이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제2의 경제활동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귀농인들은 모두가 마케팅의 주역이다.

오랜 도시생활로 인해 쌓아온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훌륭한 표적시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귀농인들은 지산지소운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후드마일리지 긴 수입농산물을 기피하고 지역 내지는 이웃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자들이다.

여섯째, 귀농인구의 시장은 막대하다.

약7백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을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홍보한다면 엄청난 자원을 끌어들이 수 있다고 본다.

일곱 번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너무 짧다.

기업이 탄생하여 자립하기엔 최소 4~5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년의 지원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여덟 번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요구된다.

가능하면 공공구매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구매활동에 동참해주어야 한다.

아홉 번째, 노동부인증요건의 완화를 요구한다.

6개월만의 수익창출, 유급 인력채용 등 재정 상태를 고려한 인증조건이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지원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건비만 국한하지 말고, 연구, 가공, 보관, 물류 등 시설투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한 번째, 소수정예원칙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지자체 또는 노동부 모두 실적위주보다는 기존기업들에 대한 집중육성을 통해 중도하차를 예방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홍보 및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 지역민들은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지자체의 모든 행사장 및 마을이장단 혹은 각종사회단체를 통한 홍보 및 제품소개 등 사회적기업 확산운동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2

원주민이 바라보는 귀농,귀인의 문제와 과제

이 기 왕 이장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원주민이 바라보는 귀농, 귀인의 문제와 과제

이기왕(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이장)

1.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마을소개

- 32가구 (귀농가구:11) 2012년 말까지 2가구 더 들어올 예정
- 인구 80명 (남녀비율 비슷)
- 30대→50대 초반인구(21명)
- 1세→19세(16명)
- 남성여성민우회, 홍성군 공공관리 사업소와 자매결연
- 주요농업: 유기농업 90% (수도작, 감자, 양파, 도라지 등)

2.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마을의 장점

- 젊은 세대와 이이들, 유기농업 등으로 인해 귀농, 귀촌 문의와 지역 내 관심 많음
- 출향인의 마을에 대한 관심도 높음
- 다양한 재능 활동가 많음 (미술가, 작곡가 등)

3.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마을의 단점

-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약함
- 원주민과 귀농인과의 융화 미흡
- 전체적인 마을 융화 미흡

4. 귀농인에 대한 문제제기

- 어떤 목적으로 귀농 귀촌 했는지?
- 마을 분들과의 융화보다는 귀농인들 끼리 교류 및 집단화
- 마을행사참여 미흡
- 농사 및 주변정리 정돈 미흡
- 마을 공동체보다 자기이익 우선
- 생각은 앞서나 실천은 미흡

5. 발전 과제

- 원주민과 귀농인과 정기적인대화
- 마을 내 문제점 공유 및 치유
- 원주민 귀농인의 장점을 교류
- 마을공동체와 주인의식 고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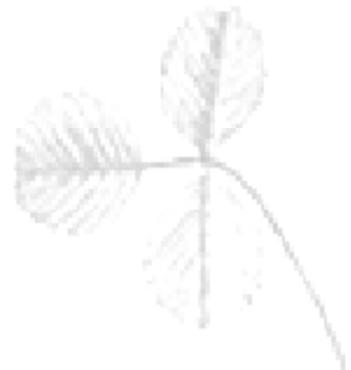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토 론 3

사회적경제와 귀농·귀촌

조 남 준 대표

조아라



사회적 경제와 귀농/귀촌



발표자: 조 남 준



조남준

8시간 전 충청남도 아산 근처에서 모바일에서

귀농과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연계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고민 고민 해야 합니다.

한 말씀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조관희님, 조갑순님 외 29명이 좋아합니다.

김중성 생 귀농 9개월에 뭐라 딱히 말말은 없지만 이것만은 아무런 준비없이 귀농, 귀촌 하려다간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무력함이 듬니다. 저가 지금 딱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9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 1

홍중운 귀촌은 예외적 십지만 귀농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9시간 전 · 좋아요 취소 · ♡ 4

이관익 살기좋은 세상이라함은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니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귀농시 자신의 확실한 목표와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 1

석재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황이 각자가 다르니 ... 우선 그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을 택하시고 도회지의 인력과 재능을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시면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지 산촌으로 귀농해서 한 십년 고생하니,산에서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지혜(?)가 생기더군요. 이제 보이는 것 전부 돈으로 보입니다.

그저 인내와 끈기...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귀농의 성공조건인 듯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8시간 전 · 좋아요 취소 · ♡ 1

박경동 행복 만족도?

8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 1



백근우 성공시계를 모아서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듯...

8시간 전 · 좋아요 취소 · ♡ 1



조남준 김중성님, 홍중운님, 이관익님, 석재규님

에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먼저 기본적 채워져야 하는 조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죠.

발표 자료 중 한 부분을 넣어 보아겠습니다.

21분 전 모바일에서 · 수정됨 · 좋아요 · ♡ 1



서석권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궁금하네요? 처음들은 용어여서!

6시간 전 · 좋아요 취소 · ♡ 2



조갑순 인연설이란게 도가있더군요 인연설을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무작정귀농이 아닌 인연설으로 적응력과 마을에 도움이되는일에 무게를 둔 인연설이된다면 적어도 귀농이 어렵다면 그마을의 홍보대사가 될수도있을듯하지않을까요? 생각만 많은 @@@

6시간 전 모바일에서 · 좋아요 취소 · ♡ 2



최명준 사회적경제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안에 귀농도 포함 시켰으면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요즘 배우며 느낀 것은 적자생존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따라서 귀농도 사회적경제 체제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면 좋겠지요. 마을기업이라든지 농어촌 공동체 사업 이런 것도 수업에서 들었는데...

귀농의 절차적 방법이나 지원들은 별개의 사안이겠지요. 안정적 귀농을 위한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나가야 겠지요.

3시간 전 · 좋아요 취소 · ♡ 1

귀농귀촌 & 사회적경제

농촌에서의
적응과 삶



사회적경제
에 대한 인식
부족

충남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뿌리가 부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귀농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 - 수입

귀농 3년 ~ 5년 후 고비

작은 땅 → 하우스 재배

하우스 1~2명 억대매출, 5~6명 보통, 1~3명 적자

하우스 노하우 [멘토&선배 / 3년의 시간 - 공부, 연구, 시행착오 등]

1차 생산 + 2차 가공 + 3차 서비스

농사 비즈니스 구축 : 시간, 노동, 연구 - 투자 대비성과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홍보 강화



함께 만드는 행복

[가치창조 사례]

- 나이 : 69세
- 기업 CEO 출신 (아산)
- 마을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시작
- 마을 지도자의 만지



- 팔목 : 김스
- 발 : 불편한 걸음
- 농사일 확대를 원함
- 농사꾼이라는 인정 받고자 함

- 가족 걱정 및 근심
- 꿈 : 살기 좋은 고향 만들기
- 기업 CEO의 경험을 살려서 사람을 세우는 역할

농촌에서의 사회적경제/자본/기업 적응사례(정보) 필요

함께 만드는 행복

[사회적자본부자]

- 삼성 간부 출신 [남편]
- 부녀회장 [2년차]
- 사회적자본 만들기 [신력]
- 권역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 마을기업 1년차 [~ing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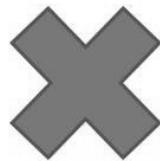
- 먼저 쌀 내놓기
- 겨울철 노인 식사 제공 확대
- 컴퓨터 무료교실 실시
- 한글교실 실시
- 마을에 품앗이 확대

- 마을 사업 자본 투자
- 200만원 x 36명 [부녀회]
- 백석 올미 영농조합법인 출범
- 한과사업 시작

여러종류의 스타 발굴 및 사례 전파

농촌과 귀농귀촌의 갈등

농촌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시스템으로
문제해결 방법 제시 필요!!!!

**농촌과 귀농귀촌의
갈등해결을 도와 줄**

농촌 사회적경제 연구소

필요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참고문헌 1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유 학 열 부장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분석

유학열(충발연 농촌농업연구부 부장)

《요 약》

- 본 稿에서는 충남의 귀농인구 변화,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및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주행태에 대해 파악, 분석하였다.
- 충남의 귀농인구(가구)도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과거 9년 동안 서천군이 18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137세대), 논산시(126세대)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로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가 29.3%로 가장 높고,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25.6%),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7.6%)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촌 이주 시 염려되는 점으로서는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 같다’가 36.9%로 가장 높고, ‘수입이 적을 것 같다’ 17.6%,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14.0% 순으로 나타났다.
- 충남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는 동일 시·군 33.1%, 충청남도 내 타시·군 15.8%, 타시·도 51.1%로 나타나 과반수가 충청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시·도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가 14.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I. 머리말

-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즉, 귀농¹⁾·귀촌²⁾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에는 영농만을 위한 귀농이 아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³⁾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본稿에서는 충남의 귀농인구변화, 귀농·귀촌 의향 분석, 이주 행태에 대해 파악, 분석하고자 한다.

II. 충남 귀농인구(가구)의 변화

1. 전국의 귀농인구(가구) 변화

- 1997년 IMF위기 이후 귀농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 1998년~1999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가구수가 연간 약 4,000~6,000가구로 급증하였으나, 그 후 2005년까지는 연간 약 1,000가구 수준임
- 최근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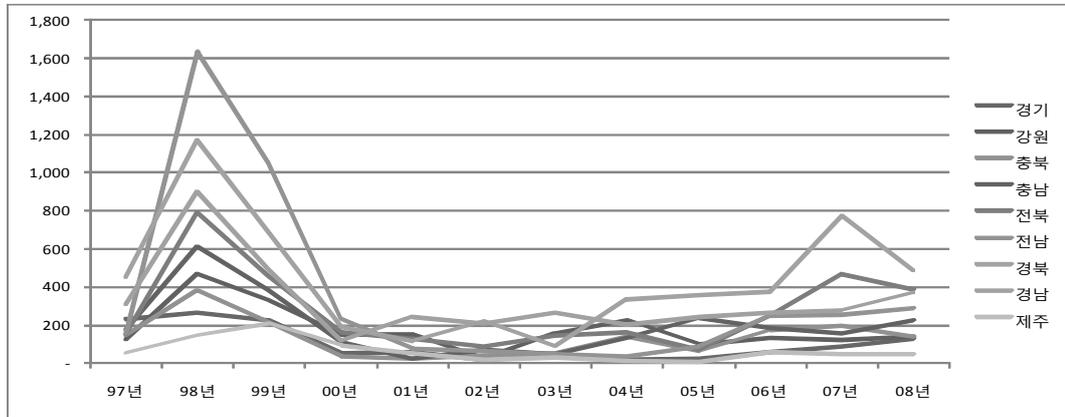
1) 본稿에서는 귀농을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면지역이하)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이라 정의함

2) 본稿에서는 귀촌을 상기의 귀농을 포함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의미함

3) 戰後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1955년~1964년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됨

-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약 2,000가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전북, 경남지역으로의 귀농인구 비율이 높다.

○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귀농인구 비율은 전국 대비 약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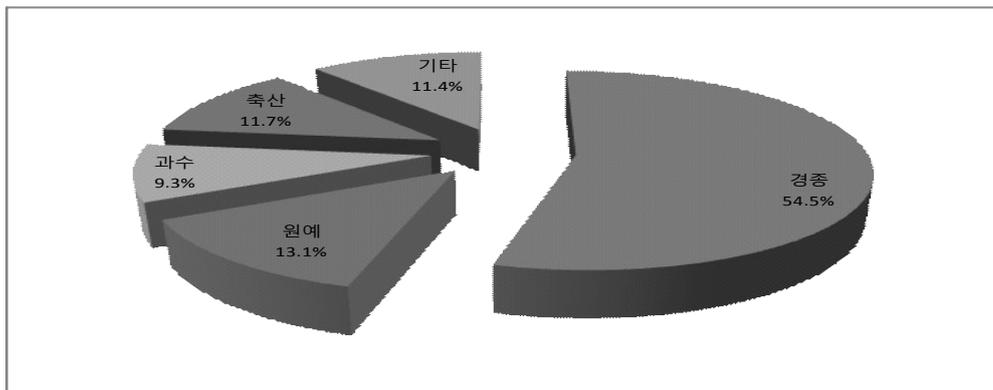


[그림 1] 전국의 귀농인구(가구) 추이

○ 30, 40대의 귀농자 비율이 높음(2004년 기준)

-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27.1%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 합친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젊은 층이 생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는 경종 분야가 54.5%로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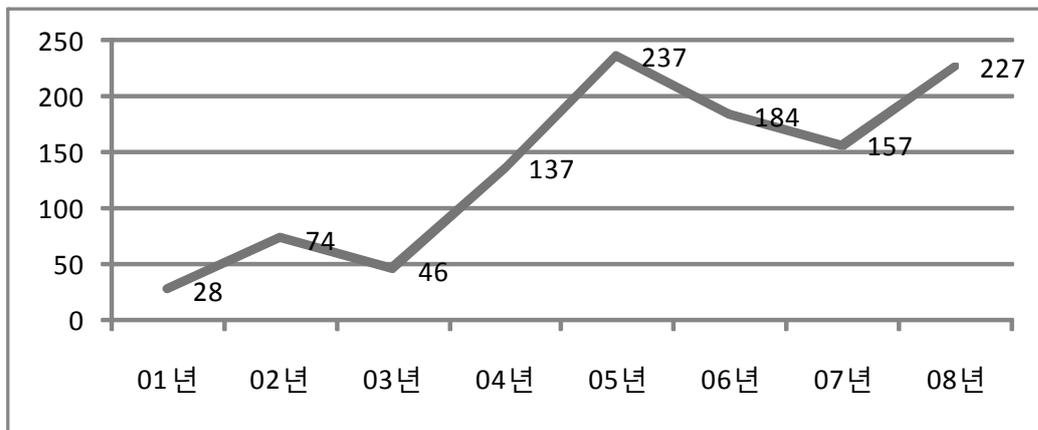
자료: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그림 2] 전국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90~04년)

- 전업농 중심의 귀농에서 최근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이 등장하고 있다.
 - 귀농인구가 급증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를 위한 ‘전업농업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휴양·요양형’, ‘도시출퇴근형’ 등 생계 이외의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2. 충남의 귀농인구(가구) 변화

-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나,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다.
 - 2005년 기준 과거 4년 동안의 귀농가구수가 연평균 71.3세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201.3세대로 약 3배가 늘어났다.



자료: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그림 3] 충남의 귀농인구 추이

- 2009년 기준 과거 9년 간 시·군별 귀농인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천군이 18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주시(137세대), 논산시(126세대) 순으로 귀농인구가 많다.
- 2004년 기준 충남지역으로 유입된 귀농가구의 종사분야를 살펴보면, 총 137가구 가운데 경종 분야가 71가구(51.8%)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 분야 19가구(13.9%), 원예 분야 16가구(11.7%), 과수 분야 10가구(7.3%)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경우 축산 분야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고 과수 분야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 2004년 기준 충남지역으로 유입된 귀농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37가구 가운데 40대가 51가구(37.2%)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9가구(28.5%), 30대 24가구

(17.5%), 60대 이상 21가구(15.3%)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가구에 불과했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국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충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충청남도 귀농가구의 종사분야 및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가구 수	종 사 분 야					연 령 별				
		경종	원예	과수	축산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1,302	723 (55.5)	142 (10.9)	135 (10.4)	98 (7.5)	204 (15.7)	34 (2.6)	243 (18.7)	402 (30.9)	423 (32.5)	200 (15.4)
충남	137	71 (51.8)	16 (11.7)	10 (7.3)	19 (13.9)	21 (15.3)	2 (1.5)	24 (17.5)	51 (37.2)	39 (28.5)	21 (15.3)

자료: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

III.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분석4)

- 전국의 도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향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특별히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충남지역을 선택한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11.4%), 강원(11.2%)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이주 희망지역의 도별 비율

경기	경남	강원	충남	전남	전북	충북	제주	기타
19.2%	11.4%	11.2%	9.1%	8.0%	5.6%	5.2%	2.0%	18.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농촌정주수요조사결과.

◆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

-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은퇴 후에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2000명 가운데 충남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한 자만을 분석

〈표 3〉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전국	충남
은퇴 후에 여가생활을 위해서	34.1%	29.3%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29.8%	25.6%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12.9%	17.3%
도시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3.9%	0.8%
가족이나 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려고	2.9%	0.8%
집안의 농사일이나 가업을 맡아서 하려고	2.1%	0.8%
농사일을 하고 싶어서	2.1%	3.1%
도시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1.5%	3.0%
자녀교육을 위해서	1.2%	1.9%

◇ 농촌 이주에 대한 준비

-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농촌 이주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아주+어느 정도)’ 는 응답비율은 전국(25.8%)에 비해 충남(30.9%)이 높다.

〈표 4〉 농촌 이주에 대한 준비 정도

준비 여부	전국	충남
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3.0%	1.9%
②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다	22.8%	29.0%
① + ② 준비하고 있다	25.8%	30.9%
③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41.7%	38.6%
④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32.4%	30.5%
③ + ④ 준비하고 있지 않다	74.2%	69.1%

◇ 농촌 이주 후 경제 활동

〈표 5〉 농촌 이주 후 경제 활동

경제 활동 내용	전국	충남
농사 이외의 자영업을 하겠다	24.0%	24.3%
전문직에 종사할 것이다	17.6%	17.7%
농림어업에 종사할 것이다	14.6%	19.2%
직장에 다닐 것이다	12.1%	12.6%
경제활동은 안할 것이다	30.8%	25.5%

◇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농어업 분야

-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분야는 전국의 경우 과수(34.4%)가 가장 높았으나, 충남의 경우는 밭농사(44.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경우 논농사를 희망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농어업 분야

농림어업 종사 시 희망 농어업 분야	전국	충남
과수	34.4%	16.7%
밭농사	33.7%	44.1%
논농사	16.9%	25.7%
축산	6.6%	6.1%
임업	3.4%	3.7%
양식업	1.7%	3.6%

◇ 이주지역 결정 시 고려 사항

〈표 7〉 이주지역 결정시 고려 사항

고려 사항	전국	충남
생활환경이 편리한 지역	47.1%	42.5%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24.8%	23.5%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있는 지역	23.7%	29.2%
기타	4.1%	4.7%

◇ 농촌 이주 시 선호하는 지역 조건

〈표 8〉 이주 시 선호하는 지역 조건

선호하는 지역 조건	전국	충남
자연환경과 경관이 좋은 지역	61.5%	61.7%
산업 활동이나 사업 여건이 좋은 지역	13.7%	17.3%
주민 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	7.3%	4.7%
숲이 있는 지역	6.3%	5.0%
농사여건이 좋은 지역	4.4%	3.4%
전통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4.1%	5.8%
기타	2.4%	2.0%

◇ 농촌 이주 시 염려되는 점

〈표 9〉 농촌 이주 시 염려되는 점

염려되는 점	전국	충남
사업이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15.3%	14.0%
수입이 적을 것 같다	18.5%	17.6%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 같다	37.1%	36.9%
원주민 이웃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6.9%	7.6%
도시지역의 친지나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다	15.8%	19.2%

◇ 농촌 이주 시 예상되는 불편한 점

〈표 10〉 농촌 이주 시 예상되는 불편한 점

불편한 점	전국	충남
생활편의시설 부족	17.7%	13.3%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 부족	34.5%	36.0%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부족	24.3%	32.2%
여가나 문화시설 부족	16.7%	11.4%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 부족	3.2%	3.7%

◇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표 10〉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수요

지원 내용	전국	충남
정보제공과 상담	6.1%	8.5%
행정적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10.0%	13.3%
농촌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8.0%	9.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융자)	17.3%	14.6%
일자리 제공	16.9%	15.3%
생활여건 개선	40.2%	38.3%

IV.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행태

충남의 총 146개 면지역 가운데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同年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면지역으로 전입해 온 전체 전입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및 전입 전 거주지(전출지)를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시도별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 도시민들의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조사 대상 지역

충남 16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⁵⁾를 제외한 15개 시·군별로 2개 면을 표본으로 선정 총 30개 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은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면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전형적인 농산어촌의 특징을 가진 지역을 택하였다.

5) 계룡시에는 신도안면, 염사면, 두마면 3개의 면이 있으나, 신도안면의 경우 전주민이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염사면, 두마면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외부 유입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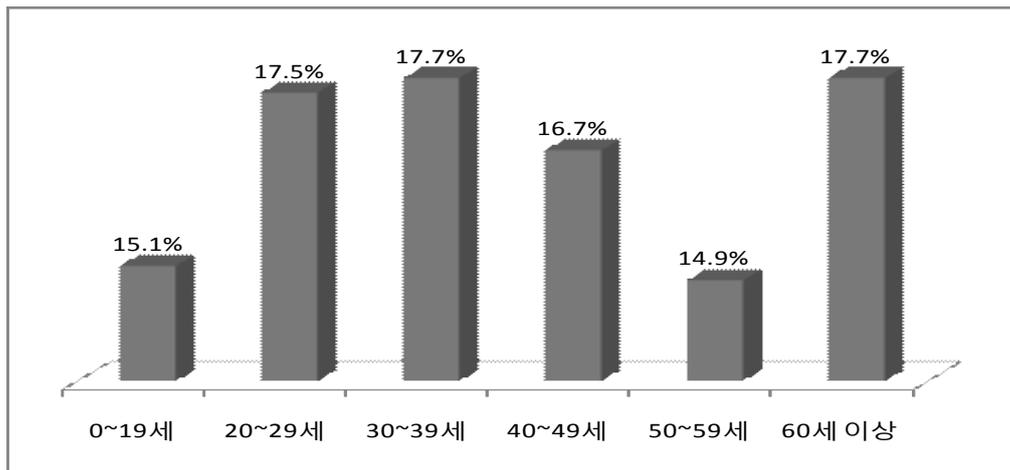
〈표 11〉 조사 대상 지역

시군	대상 면	시군	대상 면	시군	대상 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	공주시	반포면, 계룡면	보령시	남포면, 청라면
아산시	송악면, 영인면	서산시	부석면, 응암면	논산시	광석면, 상월면
금산군	금북면, 복수면	연기군	전의면, 전동면	부여군	장암면, 구룡면
서천군	마서면, 문산면	청양군	비봉면, 대치면	홍성군	홍동면, 홍북면
예산군	응봉면, 오가면	태안군	오가면, 소원면	당진군	고대면, 정미면

2. 조사 결과

1) 성별·연령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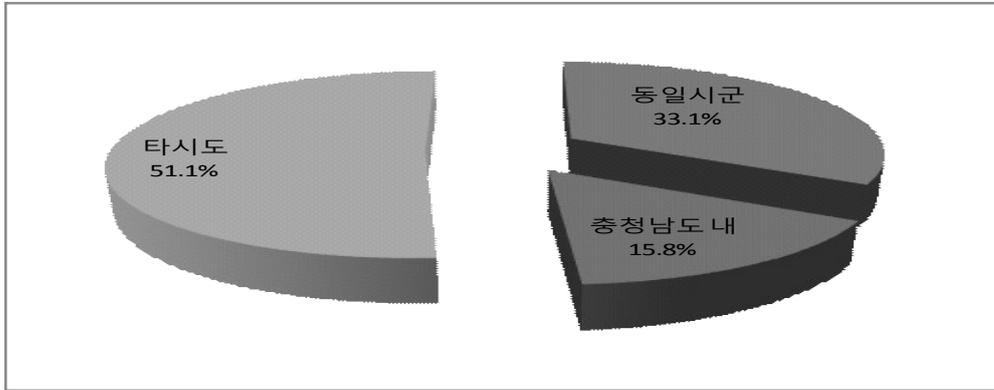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의 성별 비율은 남자 51.7%, 여자 48.3%로 성별에 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 연기 전동면(남자 비율 61.2%), 금산 금북면(남자 비율 57.9%), 청양 비봉면(남자 비율 57.5%)의 경우 남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 한편,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와 60세 이상이 각각 17.7%로 가장 많았으며 20~29세 17.5%, 40~49세 16.7%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전입자가 제법 많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입자가 많은 지역은 천안 광덕면, 아산 영인면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농촌지역과 홍성군 홍동면으로 귀농·귀촌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자 연령별 분포

2) 전출지 권역별 특징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 시·군에서 33.1%, 충청남도 내 타시·군에서 15.8%, 타시·도에서 51.1%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타시·도에서 전입해 왔다.



[그림 5]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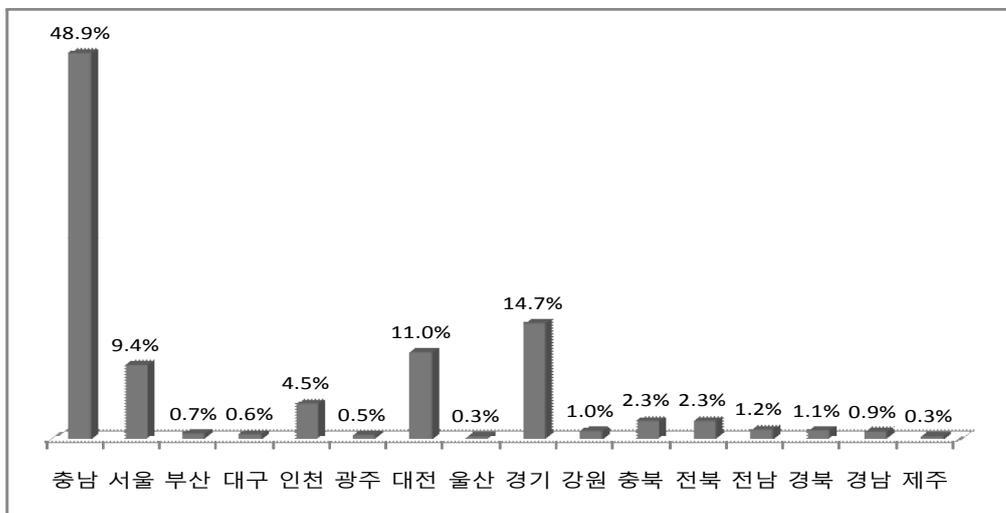
- 특이한 점은 금산 복수면, 공주 반포면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비율이 약 90%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두 지역 모두 대전시와 인접해 대전시로 부터의 유입인구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전출지 속성별 특징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도시와 농촌, 수도 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우선, 도시/농촌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으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80.0%로 농촌지역 의 20.0%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91.4%가 도시지역 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주민들의 농촌이주가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도시지역으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은 공주 반포면(90.0%), 금산 복수면 (90.4%), 보령 청라면(89.3%)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관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28.7%, 비수도권이 71.3%로 나타났 으며 태안 이원면(수도권 53.4%), 당진 정미면(수도권 52.6%), 아산 영인면(수도권 41.3%)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유입이 전체 평균 보다 무척 높았다.

4)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특징

-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시·도별로 살펴 본 결과 충남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4.7%로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이다. 그 외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의 경우 인근의 충북으로부터의 전입이 뚜렷이 많았으며, 공주 반포면, 금산 복수면, 금산 금북면의 경우는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이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서천 마서면의 경우 전북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타 시·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아산, 서천, 청양, 태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 이원면의 경우 예부터 인천지역과 연고가 깊은 탓인지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22.0%로 경기, 서울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거리적 접근이 어려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1.0% 전후로 무척 낮다.



[그림 6] 충남 농촌지역 전입자의 전출지 지역 분포

V. 맺음말

1. 충남도 귀농·귀촌 수요 예측이 필요

- 귀농·귀촌 수요를 예상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중요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임
- 귀농·귀촌 수요를 잘 예측하려면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 귀농·귀촌의 정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 취합하는 노력이 필요

2. 다각적인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귀농·귀촌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실태를 파악하고,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며 어떠한 정책수요가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함. 최종적으로는 유형별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충남도차원의 지원책 마련 필요

- 그 동안의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 시책이고,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독자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도 차원의 시책은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음
-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차원의 지원책 및 지원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유학열(2010), “충남지역의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중간연심회 자료

충청남도(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제6차 충남사회적경제 콜로키움

■ 참고문헌 2

한국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귀농·귀촌

이수행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

■ 이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 창조경제연구부 이수행연구위원님의 이슈& 진단에 실린 글입니다.

이슈 & 진단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 귀농 · 귀촌

제42호 2012. 4. 4

- 작성 : 이수행 / 창조경제연구부 연구위원
(soohaeng@gri.kr, 031-250-3278)
이상훈 /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목 차

쟁점과 대안

I. 귀농 · 귀촌의 현황

II. 귀농 · 귀촌의 새로운 트렌드

III. 정책방향

IV. 시사점

- 「이슈 & 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발행|2012년 4월 • 발행자|홍순영
•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전화|031-250-3114 <http://www.gri.kr>

베이비부머의 농촌지역 이주는 농촌지역 인구변화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농촌경제 및 개발정책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안전망과 연금제도, 노동력 관리, 보건정책 등 사회경제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농촌이주는 소득과 고용 면에서 이주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주거, 교통,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농촌지역 이주는 지역경제에 자본유입과 개발기회 확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인정책을 확대시키거나 다양한 전략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Cromartie and Nelson, 2009-
“Baby Boom Migration and Its Impact on Rural America”, *Economic Research Report 79*, ERS, USDA.

쟁점과 대안

한국에서의 귀농·귀촌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직으로 인한 생계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금융위기와 베이비부머 은퇴, 전원생활 선호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98년에는 6,409가구가 귀농·귀촌하여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고, '11년에는 10,503가구로 전년대비 1.6배 증가하였다. '97~'99년 기간 동안에는 30대가 48.6%로 귀농·귀촌을 주도한 반면, '09~'11년 기간 동안에는 50대(30.8%)와 40대(27.9%)가 주도하였다. '11년 기준 지역별 귀농·귀촌 비중은 강원 20.6%, 전남 17.2% 등의 순이며 경기도는 2.1%이다.

최근의 귀농·귀촌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형」은 자본과 모바일·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융·복합 농산업을 발전시켜 역대 부농을 확대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전원생활형」은 은퇴 이전에 이직하여 소규모 영농과 유통, 관광, 창작활동 등에 종사하며 전원적 생활을 중시한다. 「노후생활형」은 은퇴자가 농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규모의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자족적 노후생활을 영위한다.

실업자나 은퇴자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도시의 잉여 노동력과 복지수요를 농촌공동체와 생산시스템에서 흡수함으로써 도·농을 연계한 생산적·능동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 이후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스타트업(Start-up) 단계의 귀농인 대상 전문경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은퇴자 및 빈곤노인에게 적합한 작물 재배 및 빈집, 은퇴농장 등의 지원을 포함하는 맞춤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3) 귀농·귀촌인이 원주민과 긴밀하게 연계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퇴직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과 농업기술원이 주도하는 기본교육과 스마트형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1년 과정의 인턴농과 2년 과정의 인큐베이팅 등 1+2적응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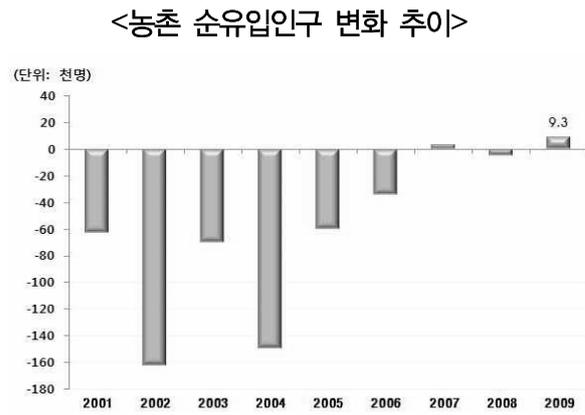
I. 귀농 · 귀촌의 현황

이촌향도(離村向都)에서 이도향촌(離都向村) 시대로 전환

- 한국의 도시화율은 2000년 이후 90%대를 유지하며 정점에 달한 가운데 2007년을 기점으로 농촌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초과
- 2007년 농촌순유입인구가 3천4백 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9천3백 명으로 증가



자료 : “전국민의 91% 도시지역에 산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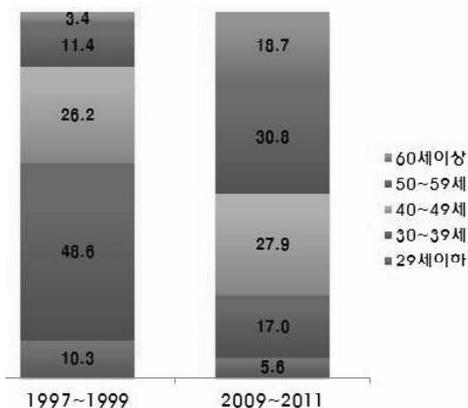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 · 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향하던 시대에서 도시의 과잉 인구가 농촌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시대로 전환을 의미
- 실업과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증가 등 현대 도시의 과잉인구 형성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의 유출을 촉진하는 압출 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
 - 전일생활 선호, 친환경 농산물 등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의 발전 등은 농촌과 농업의 흡인력(Pull Factor)으로 작용

경제위기와 베이비부머 은퇴를 계기로 귀농·귀촌 급증

-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원생활 양식 선호 등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 증가
 - 귀농·귀촌 가구는 1998년 6,409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2.5배 급증하였고, 그 후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11년 다시 10,503가구 전년대비 1.6배 증가
 - 1997년 외환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귀농·귀촌이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시기 도래와 맞물려 또다시 급증
 - 귀농·귀촌 인구의 연령별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30대가 48.6%를 차지한 반면, 최근에는 50대가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30대의 귀농·귀촌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실업, 농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등으로 2009~2011년 기간에도 17.0% 차지
 - 스마트농업, 융·복합농업 확대 등으로 농업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젊은 영농인이 지속적으로 유입

<연령별 비중>



<연도별 귀농가구 수 추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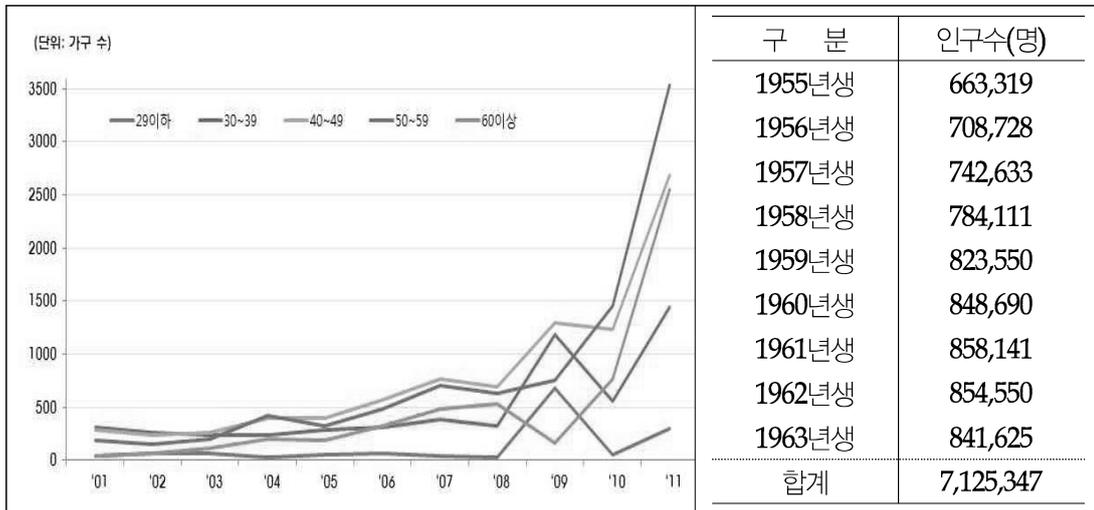
자료 :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물부 보도자료(2012.2.23).

□ 2009년 전후 우리나라의 압축적 도시화 ·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1955년생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귀농 · 귀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

- 은퇴기에 도달한 베이비부머들은 도시를 떠나 전원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 · 귀촌을 선택하는 경향이 대두
 - 교통인프라의 개선,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의 은퇴자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소요된다는 점 등도 귀농 · 귀촌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¹⁾
- 20~30대의 귀농 · 귀촌이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0년 다시 급증
 - 2009년 20~30대의 귀농 · 귀촌이 급증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도시지역 일자리 감소가 주요 원인
 - 최근에는 역대부농 탄생, 스마트농업 등 농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젊은 층의 귀농 · 귀촌 증가

<연령별 귀농 · 귀촌 가구 변화 추이>

<베이비부머 인구규모>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1) 노후 필요 생활비가 광역시의 경우 2억5천만 원 인 것에 비해 군지역은 1억4천만 원으로 광역시의 58%에 불과(이철용(2006), 노후자금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 LG주간경제 871호, LG경제연구원).

선진국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귀농 · 귀촌 증가 추세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에 귀농 귀촌이 증가
 - 일본은 68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1947~49년생) 은퇴시기가 도래 하면서 2000년 이후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²⁾
 - 미국은 1990~2010년 기간 동안 비도시지역 인구가 323.4만 명 증가했으며, 2020년 비도시지역 인구는 2010년 대비 26.5% 증가 전망
 - 영국은 지난 10여 년간 80만 명의 농촌인구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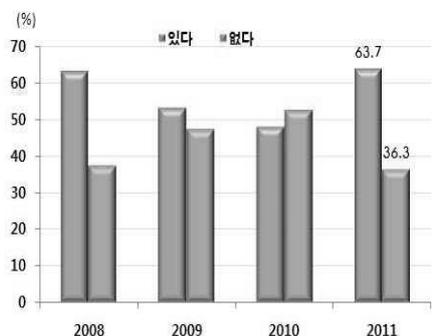
- 우리나라 도시민의 63.7%가 귀농 · 귀촌 의향을 가지고 있어, 베이비부머 귀농 · 귀촌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귀농 · 귀촌 의향은 2010년까지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다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
 -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 귀농 · 귀촌의 요인과 형태가 다양화 될 전망

<미국 비도시지역(nonmetro) 55~74세의 인구 수>
(단위 : 백만 명)

구 분	1990	2000	2010	2020 (추정)
북동부(Northeast)	0.886	0.925	1.276	1.686
중서부(Midwest)	2.633	2.685	3.235	3.944
남부(South)	3.480	3.868	4.972	6.272
서부(West)	0.957	1.152	1.708	2.251
합계	7.957	8.631	11.191	14.152

자료 : John Cromartie and Peter Nelsom(2009). *Baby Boom Migration and Its Impact on Rural America*. USDA

<한국 향후 농촌 거주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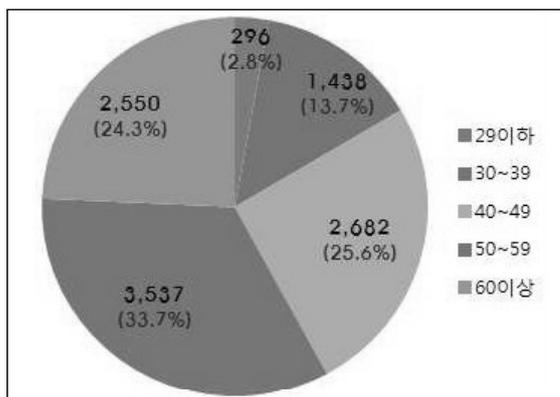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 · 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최윤지 외(2012). “귀농 손자병법 :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RDA Interrobang』, 제53호,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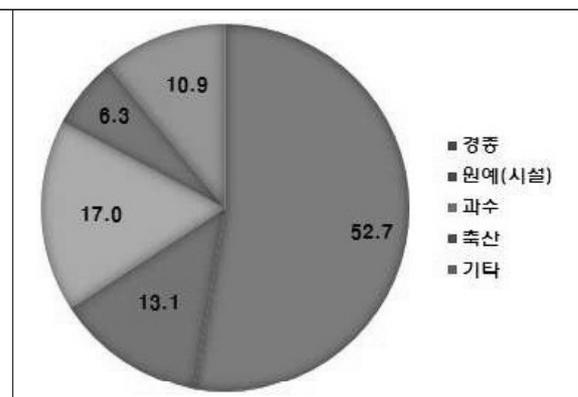
최근 5년간 귀농 · 귀촌의 높은 증가세는 40대 이상이 주도

- 귀농 · 귀촌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가구 수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06~2011년 기간 동안 귀농 · 귀촌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51.2%, 50대 49.0%, 40대 36.5%, 30대 35.5% 등의 순임
- 2011년 기준, 연령별 귀농 · 귀촌 가구 수는 50대 3,537가구(33.7%), 40대 2,682가구(25.5%), 60세 이상은 2,550가구(24.3%) 등의 순임

<연령별 귀농 · 귀촌 분포(2011)>



<귀농인의 주요 선택 작목(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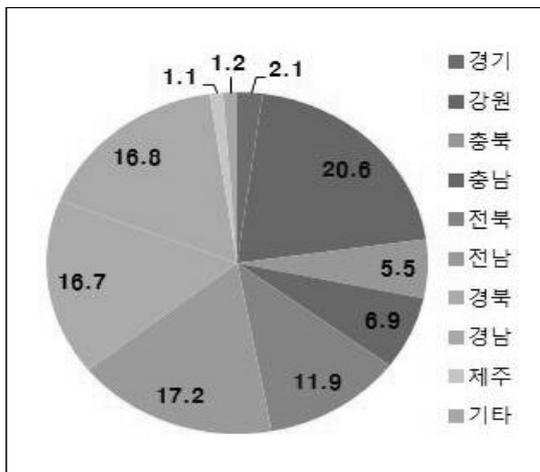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 귀농인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경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채소, 오이 등 경종업을 선택하는 경향
- 귀농인이 선택하는 주요 작목은 경종업 52.7%, 과수 17.0%, 축산 13.1% 등 순임
- 채소, 오이, 토마토 등 경종업은 과수, 축산 등에 비해 경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자금회전이 빨라 귀농 · 귀촌인의 조기 정착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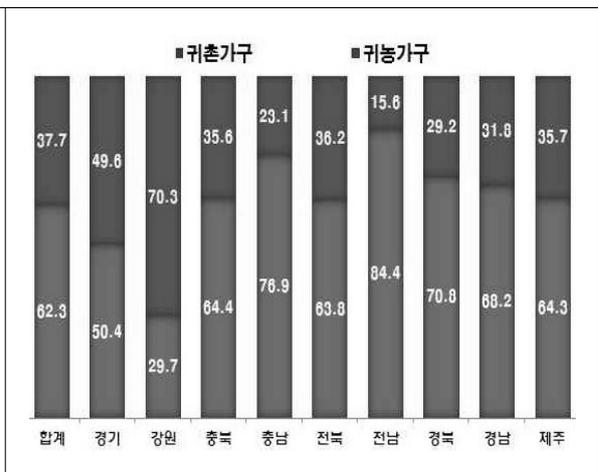
귀농 · 귀촌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강원, 전남 등에 집중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귀농 · 귀촌의 지역별 비중은 강원도가 2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남 17.2%, 경남 16.8%, 경북 16.7% 등 순임
- 강원도 등 비수도권으로의 귀농 · 귀촌 비중이 높은 것은 낮은 토지가격, 적극적인 유치정책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비수도권 지자체가 귀농 · 귀촌 유치를 위해 조례제정 등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수도권은 용진군, 양평군 등 지역만 조례제정
 - 경기도는 높은 토지가격과 도시화로 우리나라 귀농 · 귀촌 가구의 2.1%로 낮은 비중을 차지
- 강원도와 경기도는 귀촌의 비중이 높고, 전남, 충남, 경북 등은 귀농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강원도의 귀촌 비중은 70.3%, 경기도는 49.6%, 전남은 귀농의 비중이 84.4%, 충남 76.9%, 경북 70.8% 등임

<귀농 · 귀촌의 지역별 분포(2011)>



<지역별 귀촌과 귀농의 비중(2011)>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물부 보도자료(2012. 2.23).

Ⅱ. 귀농 · 귀촌의 새로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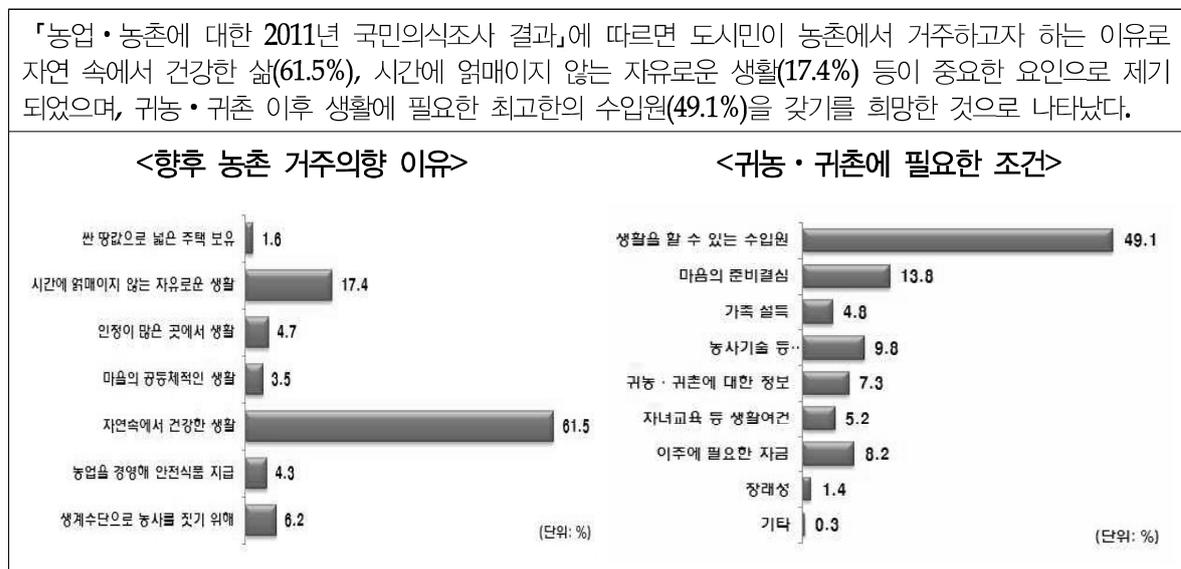
귀농 · 귀촌이 생계형에서 스마트형, 전원생활형, 노후생활형으로 분화

- IMF 당시의 귀농 · 귀촌이 실직에 의한 생계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형」, 「전원생활형」, 「노후생활형」으로 분화
 - 스마트형은 기업적 가치를 추구하며 농업에 디지털 · 모바일 환경을 결합하여 융 · 복합 산업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집단
 - 자본 및 기술을 가지고 귀농 · 귀촌하거나 농업대학 졸업 후 창업하는 청장년으로 생산-유통-판매에서 새로운 양식을 도입 하여 혁신을 주도
 - 전원생활형은 텃밭 가꾸기, 창작 · 취미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 도시의 제약된 환경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을 통해 전원적 삶을 추구
 - 일부는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 커뮤니티의 변화를 주도

<귀농 · 귀촌의 유형 구분>

유 형		시기 (직업변화형태)	목적	생활영역 및 형태
스마트형		청장년 (창업/전업)	- 기업적 가치 추구	-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종사 - 융 · 복합 영농
전원 생활형	귀촌	청장년 (이직/전직)	- 삶의 대안적 가치 추구	- 전원적 생활양식 추구 - 텃밭 가꾸기, 창작 · 취미생활 등 추구
	귀농			- 전원적 생활양식 추구 -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다양한 소득창출 활동
노후생활형		노년 (은퇴)	- 노후생활 터전	- 노인이 경작 가능한 실버농업에 종사 - 중산층과 빈곤층 혼재

- 노후생활형은 은퇴 이후 귀농하여 양봉, 버섯, 텃밭 등 노인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영농으로 자족적 생활을 하는 노인층
 - 은퇴 이후 노인이 도시에서의 수동적·소비적인 삶보다 농촌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통해 보람 있는 노년 생활이 가능
 - 노후생활형 귀농·귀촌은 도시지역의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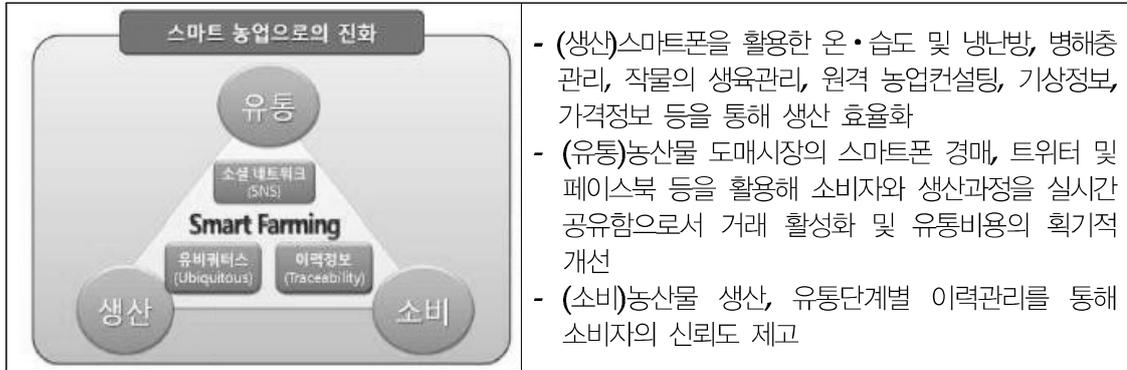
자료 : 김동원 외(2011).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형은 IT와 농업을 결합한 융·복합 농산업을 추구

- 농업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모바일 기술과 결합되면서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역에서 스마트농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
 -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에 기초한 농사기술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공간을 뛰어 넘는 정밀하고 표준화 된 관리가 가능
 - 영농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맞춤형 스마트농업이 태동

- SNS, 스마트TV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여 직거래, 공동구매 등이 활성화

<스마트농업의 진화>



자료 : 김상철 외(2011). “스마트 시대, 스마트 농업”, 『RDA Interrobang』 제13호, 농촌진흥청.

○ KT, 농촌진흥청, 일부 지자체 등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KT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재배시설을 작동시켜 물주기, 온도조절, 습도조절 등 토털감시 및 제어기능이 가능한 올레스마트팜 개발
- 농촌진흥청은 기상정보, 병해충발생정보, 농업기술정보 등을 농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KT 시설재배용 올레스마트팜>



자료 : “KT, 시설재배 관제용 앱 ‘올레 스마트 팜’ 개발”, KT 보도자료(2011.3.10.).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기술정보>



자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귀농 2세대³⁾는 1세대의 생산기술에 IT를 접목하여 역대 부농 실현

- 디지털 · 모바일 기술과 농업의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농장관리, 인터넷 판매 등으로 역대 부농을 실현한 사례 증가
 - 귀농 3년차인 경기도 여주의 J씨는 생산성이 높은 기무재배 (氣霧栽培)라는 새로운 시설농법을 도입해 무농약, 무오염의 채소 생산
 - 전남 영암의 A씨는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개척
 - 전남 무안의 B씨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암소의 수정시기, 품종관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수품질의 송아지 생산

<기무재배 농법을 활용한 시설채소 재배>

경기도 여주에 귀농한 J씨는 대기업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기무재배 농업기술을 은퇴 이후 귀농에 활용하여 품질 및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무농약, 무오염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J씨가 도입한 기무재배 기술은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재배와 달리 양액을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법으로 물 사용량이 기존 농법의 10%에 불과하다.

J씨는 또한 회사근무시 습득한 철골기술을 활용해 하우스를 돔 형식으로 설치하였다. 돔 형식의 하우스는 공기순환이 잘 되며, 실내 재배공간 디자인을 다채롭게 하여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료 : 현장 인터뷰 및 촬영(2012. 3. 27).

3)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귀농 · 귀촌한 세대를 귀농 1세대로 지칭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 · 귀촌한 세대를 귀농 2세대로 지칭.

전원생활형은 귀농 · 귀촌을 통해 전원적 삶의 대안적 가치 추구

- 전원생활형 귀농은 농업, 가공, 유통, 관광 등에 종사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 농촌에서 적정규모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산물 가공 · 판매 · 체험활동 등 다양한 농외소득 창출
 - 자본, 기술, 도시에서의 경험, 아이디어 등이 융 · 복합된 혁신적 농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등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

<전원생활형 귀농 사례 - 경남 산청 H씨>

<p>웨딩 포토그래퍼로 활약하던 H씨는 은퇴를 앞두고 남은 인생을 위해 아내와 상의해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약초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던 산청군으로 내려와 1년 간 당귀 농사를 지었으나 실패를 겪었다.</p> <p>실패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귀농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농이 아닌 관광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매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을 숲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단체인 '초록교실 씨밀레'와 인연이 되어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방과 후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p> <p>H씨는 또한 '구름 속 산책' 농장에서 완전 유기농으로 방사 유정란을 생산하여 공급이 가능한 도시민 150명의 소수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p>	
---	---

자료 : 귀농 · 귀촌센터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

-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업 추진, 제철꾸러미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
 - 귀농 · 귀촌인이 도시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새로운 농산업 아이템을 발굴해 활발하게 창업활동을 전개
 - 「제철꾸러미」 사업은 농산물 소비자이던 도시민이 귀농 이후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품목 · 소포장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형태로 발전시킨 사례

<귀농인의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례>

<p>사례 1 :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활동 추진 귀농 · 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2009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 된 사업은 “진안홍삼 현미경 발효제품 생산”, “지역자생약초를 활용한 효소음료 상품 개발”, “농특산물 전시장 및 직거래 유통”, “자생약초를 활용한 화장수 및 추출물 개발”, “천마차, 천마효소 만들기”, “약초생산기반을 활용한 도농교류사업”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귀농 · 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안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p>	
<p>사례 2 : 도시민의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상품화기법 개발 귀농인이 귀농하여 농사를 지은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도시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 방식으로 제철꾸러미사업이 등장하였다. 꾸러미사업은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다품목 · 소포장 형태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생산자조합이 결성되어 다수의 생산자가 텃밭형태로 토종의 씨앗을 사용하여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를 소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생산자조합과 소비자간 직거래모델로 정착되어 활성화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철꾸러미사업 소포장></p> 

자료 : 1. 황정미 외(2011). “귀농 · 귀촌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2. 최윤지 외(2012). “귀농 손자병법 :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RDA Interobang』, 제53호, 농촌진흥청.

○ 농촌마을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 귀농 · 귀촌 이후 농촌에서 대안학교 운영, 마을리더 역할을 통한 창조적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귀농 · 귀촌인이 농촌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 시너지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촉진 요소로 작용

<귀농 · 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례>

활동	사례 개요 및 효과	인적 사항	지원 유무	유사 사례
농산물 생산(가공) 조직운영	-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전처리 가공 영농조합법인 설립 · 운영 ⇒ 지역내 고용, 농산물 판매 효과 창출	52세 양구 6년차	유	완주 괴산 홍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09년 지역사회문화학교 “지리산 학교” 개교 - 귀농 · 귀촌 예술인 12명이 사진, 켈트, 시, 천연염색 등 12 과목 교양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귀농 · 귀촌인 뿐만 아니라 토착주민의 관심 및 참여 증가	41세 하동 4년차	무	봉화 산청 완주

자료 : 황정임 외(2011). “귀농 · 귀촌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전원생활형 귀촌은 경기도, 강원도 등 교통접근성 및 농촌 어메니티가 양호한 지역 선호

- 예술인, 프리랜서 등 출·퇴근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생활을 중시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존의 농촌마을과 형태적·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단지 혹은 개별형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
 - 경기도 양평, 가평 등에 많으며, 양평의 경우 700여 명의 미술작가가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
- 농촌 지역사회와의 융합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생활하거나 혹은 취미와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

<귀촌사례 - C씨의 꿀초>

번역일을 하는 C씨 부부는 2002년 귀촌했다. 부부는 하루 2차례 산책을 거르지 않고 있으며 번역 일과 밀랍초 제작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그저 물 흐르듯 때가 되면 초를 만들고 의뢰가 들어오면 함께 번역 작업을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 돌보는 일을 한다. C씨가 귀촌 이후 현지의 꿀을 활용해 제작하는 밀랍초는 한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연재료만 사용할 뿐 인공 색상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다.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 수입이 적어도 상관없다.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 여부 확인은 나중 일이고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부부는 말한다.



자료 : bindorim 슬로카페 & 게스트하우스(<http://cafe.naver.com/bindorim>).

노후생활형은 도시은퇴자가 전원에서 노년의 삶을 영위

- 도시주민이 은퇴 후 노년의 생활터전으로 농촌을 선택하고, 소규모 영농을 통해 자족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
 - 2011년 60세 이상의 귀농 · 귀촌 가구는 2,550가구로 전년도의 769가구 대비

3.3배 증가

- 2011년 60세 이상 귀농 · 귀촌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에 달함
- 노후생활형 귀농은 노후자금이 비교적 여유 있는 중산층 은퇴자와 복지수혜의 주요 대상인 빈곤층으로 구분 가능

○ 노후생활형 농업은 실버세대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농업을 통하여 노년의 자족적 생활을 유지하는 형태

<노후생활형 농업>

노후생활형 농업은 고령자를 쾌적한 농촌으로 이동시켜 적당한 일거리와 소득생활로 실버세대가 스스로 경제적 여건을 굳건히 하면서 남은 삶을 보람 있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 노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실버세대 스스로에게 수익을 주어 노년의 안정을 추구하는 농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이 있는 고소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분야
- 작업량, 작업 강도 등이 노년층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며, 적당한 운동량이 요구되는 농사일
- 노년층 스스로가 좋아하는 농작물 선택과 동시에 농사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 제공
- 적당한 작물은 소규모의 친환경농업 및 버섯재배, 양봉, 약초재배, 곤충사육 등

자료 : OK시골(2004). “실버농업의 필요성”(http://www.oksigol.com).

<일본 실버세대의 농촌 일자리 창출 사례>

일본 오가와무리(小川村)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음식을 제조 · 판매하는 와가와무리노호(小川の庄)를 설립해 노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가와무리노호의 고용구조는 40대 이하 21%, 50대 30%, 60대 33%, 70대 16%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한다. 오야키의 제조특성은 고강도의 노동력보다는 숙련된 경험을 살린 수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착안하여 실버세대의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령자가 제조 · 판매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전통수작업 제조방식>	<오야키 정식>	<오야키 체험홍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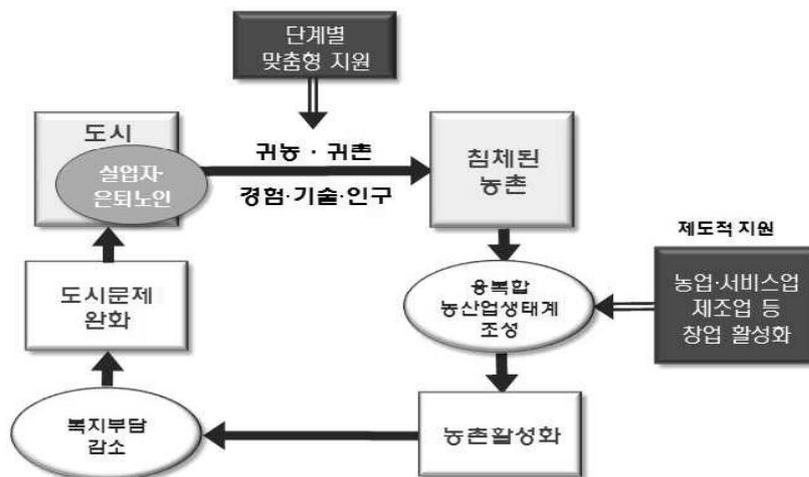
자료 : (사)지역농업네트워크(2010). 『해외출장보고자료』.

Ⅲ. 정책방향

귀농·귀촌으로 도·농 연계 생산적·능동적 복지시스템 강화

- 실업자나 은퇴자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도시의 잉여 노동력과 복지수요를 농촌의 공동체와 생산시스템에서 흡수
 - 자본과 기술 및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은퇴자들이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여 도시의 복지부담 완화 및 농촌지역 활성화 기대
 - 은퇴 이후의 도시 생활은 소비적·수동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며 복지비용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
 - 노년에 적합한 농업 생산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능동적·생산적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발전에도 기여

<귀농·귀촌을 통한 도농연계 생산적·능동적 복지시스템>



- 귀농·귀촌인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여 농촌형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

- 농촌지역에 농업 및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시지역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하고 베이비부머와 청년층의 일자리 경쟁 완화
 - 농촌지역에 귀촌인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통신 및 정보관련 인프라의 구축
 - 도시지역 은퇴자를 활용하는 「귀농·귀촌 인적자원 활용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

스타트업(Start-up) 역대부농 전문경영인 양성

- 귀농·귀촌 이후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단계에 대한 전문경영 교육시스템 구축
 - 전문경영교육 시스템은 귀농 준비과정인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는 스타트업⁴⁾ 귀농자를 대상
 - 스타트업 이후에는 전문경영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세무·회계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 정보 지원시스템>



자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4) 스타트업이란 기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졸업하여 실제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

□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스마트형 귀농인을 위한 통합적 귀농 지원시스템 구축

-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단순한 농사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서 기후, 시장가격, 국내외 동향 등 구체적 정보와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양방향 농업컨설팅 지원

은퇴자 및 빈곤노인을 위한 맞춤형 귀농 · 귀촌 프로그램 구축

□ 은퇴자에게 건강한 삶의 보장 및 소득창출도 가능한 노후생활형농업 추진

- 노후생활형농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통한 소득창출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복합적으로 추진
 -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업종 선정 및 맞춤형 교육을 추진
 - 마을주민, 은퇴자들의 경험 및 지역 농산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통음식, 체험관광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 촉진

<일본 시즈오카현의 노후생활형농업 교육 및 체험>



사진 (좌, 중) : 静岡県 홈페이지(www.pref.shizuoka.jp), (우) : 群馬縣 홈페이지(www.pref.gunma.jp).

- 빈집, 은퇴농장 등을 활용해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마을단위 혹은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은퇴자들의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 지원
 - 국유지, 농촌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활용해 은퇴자에게 임대 분양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는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

귀농 · 귀촌인-원주민 통합형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촉진

- 전문인에서 예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귀농 · 귀촌인이 농촌사회에 흡수되어 농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 강화
- 귀농 · 귀촌인이 원주민과 통합형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창조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귀농 ·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청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귀농 · 귀촌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원주민 인터넷교육, 홈피제작 지원, 원주민 자녀의 외국어, 재능 및 특기 교육, 보건 · 의료 봉사활동 지원

<귀농 · 귀촌인이 마을리더를 담당한 지역 현황>

사업명	합계	마을종합개발			체험마을			
		소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생태 마을조성	소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름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전체(A)	1,063	343	281	62	720	535	18	167
귀농 · 귀촌 마을리더(B)	494	247	204	43	247	191	5	51
B/A(%)	46.5	72.0	72.6	69.4	34.3	35.7	27.8	30.5

자료 : “앞서가는 농촌 마을에는 귀농 · 귀촌 리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2. 20).

IV. 시사점

□ 경기도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단계별 귀농 · 귀촌 교육시스템 구축

- 경기도는 예비 귀농 · 귀촌인이 퇴직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귀농 · 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
 - 농업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추진
 - 귀농 · 귀촌 교육을 입문단계, 적응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귀농 · 귀촌 3단계 지원 방안>

구 분	귀농	귀촌
입문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련 기본 교육 ● 품목별 기본 교육 ● 스마트농업 기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별 현황 및 특성 소개 ● 귀촌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현장 중심 소개
적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농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단위 농장 전환 허용 ● 귀농 인큐베이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활용(최대 3년) - 멘토제도 도입 ● 지역별 특성화 된 전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업기술센터 중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가능 주택 DB 구축 지원 ● 지역커뮤니티 형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등 지역사업 발굴 및 지원 - 노후생활형농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비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커뮤니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Start-up)전문경영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세무, 회계 등 	

□ 경기농림진흥재단 중심의 기본교육과 농업기술원이 주도하는 스마트형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농업 · 농촌에 대한 이해, 품목별 기본교육, 귀농 · 귀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

-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내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경기도의 높은 토지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형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농업 교육 강화
-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상 5도2촌 형태의 생활이 가능하므로 정착단계 이전의 실효성 있는 1+2 귀농적응지원시스템 구축
-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턴농 1년과 인큐베이팅 2년 등 1+2 적응교육시스템 구축
 - 다양한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선도귀농인 농장에서 1~2개월 단위로 1년 정도의 인턴교육 추진
 - 2년 정도 인큐베이팅 형태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서해안 간척지 등에 임대농지 지원
- 귀촌인의 현지적응을 위해 빈집 활용 주거지원 및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 농촌의 빈집 DB를 구축해 적응단계 귀농·귀촌인의 주거를 지원
 - 정착단계 이전 귀농·귀촌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가 가능한 농산어촌 지역의 빈집 DB를 구축하여 지원
 - 경기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문화 등 분야의 사업 아이টে을 발굴하여 귀촌인의 일자리 창출
 -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한 귀농·귀촌인의 선도적 유치를 통해 교육, 문화 등의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 마을 조성

【 귀농 · 귀촌 가구 수 현황 】

(단위 : 가구)

시·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08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지역별	부산	1	-	-	-	-	1	-	-	-	-	-	
	대구	0	-	-	-	-	-	-	-	-	-	-	
	인천	216	-	1	-	16	28	2	-	-	26	20	123
	광주	13	13	-	-	5	6	-	1	-	-	-	1
	대전	2	1	-	-	-	-	-	1	-	-	-	-
	울산	7	-	-	-	-	-	7	-	-	-	-	-
	경기	88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3,769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충북	1,967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충남	2,476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전북	4,44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전남	4,235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경북	6,732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경남	4,900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제주	487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연령별	29이하	1,438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30~39	5,547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40~49	8,82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50~59	8,841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60이상	5,435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